

The Ancient Mariner에 나타난 죽음과 再生의 神話

—달(月), 뱀(蛇), 비(雨)의 象徴을 中心으로—

朴 敬 一

목 차

序

1. 알바트로스 殺害의 罪惡性
2. 罰과 贖罪

3. 달(月), 뱀(蛇), 비(雨)의 再生象徴體系
- 結 語

序

全7部로 구성돼 있는 새뮤얼 테일러 코올리지의 長詩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는 고향을 떠난 한 척의 배가 Cape Horn을 돌아 귀향한다는 의형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무릇 旅行 또는 航海의 意味는 귀향으로 완결된다. 이렇게 볼 때, 이 詩의 의형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航海는 그 소기의 意味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詩는 내용 또는 主題 면에 있어서 「죄와 벌」 또는 「죄와 구원」이라는 문제를 航海라는 문학적 方便 속에 담아 다루고 있다. 제1부에서는 실제의 범죄행위가 거의 우발적으로 저질러졌음을 「극히 가볍게」 지적하고, 제2부 및 제3부에서는 그에 따른 징벌, 구체적으로 말해서, 무리(또는 社會)로부터의 소외와 고독, 그리고 상상적 실제적 죽음 등의 가혹한 시련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 제4부~6부는 宇宙的인 사랑과 참회를 통한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며 마지막 제7부에서는 귀향, 水死, 洗禮 등의 再生 이미지들이 나타난다.

G.W. 나이트는 이 작품을 가리켜, 「지옥, 연옥, 천국을 탐구하는 小神曲」(“a little *Divina Comedia* exploring in Hell, Purgatoris, and Paradise”)¹⁾이라고 명했다. 이 작품의 전반에 걸쳐서 天國的인 어미지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나이트의 이같은 논명은 이 詩의 죄—형벌—참회—제생이라는 내용적 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동안 많은 비평가들이 이 작품을 혹은 傳記的 입장에서, 혹은 哲學的 입장에서, 또 혹은 心理學的 입장에서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 小論은 이 詩에 빈번히 나타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 moon, sun, snake, rain 등의 이미지들이 앞서 지적한 「죽음에서 再生으로」라는 내용적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종합, 분석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해보려는 시도 하에서 준비되었다.

험프리 하우스는 R.P. 워런이 이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지나치게 獨自的인 象徴性 추구에 집착,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경계하면서,²⁾ 이 詩에 사용된 moon, sun, star 등의 이미지들

1) G.W. Knight, “Coleridge’s *Divine Comedy*” in *English Romantic Poets: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M.H. Abrams. Lond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p. 202.

2) Humphry House, “The Ancient Mariner” in Abrams, op. cit., pp. 230-237.

3) Ibid., p. 236.

은 作家의 「정신의 보다 섬세한 과정과 감정의 보다 펠리키프한 분위기」⁴⁾ 표현을 위한 것임을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우스는 또 J.L. 로우즈가 이 詩의 주요한 요소를 「地, 風, 火, 水」(“Earth, Air, Fire, and Water”)⁵⁾로 분석한 데 대해, 이들 네 요소들과 天體들의 기능은 1)老水夫의 정신상태를 이미지화하고 2)이 詩의 서술적 구조면에 있어서, 平常人으로서의 老水夫와, 그 자체의 價値體系를 갖는 不可觀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老水夫 간의 連繫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우즈의 해석과는 좀 다르지만, 本論이 문제 삼고 있는 moon—sun—snake—rain으로 이어지는 象徵體系 역시 하우스가 지적한 요소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더우기 이 상징체계는 이 詩의 내용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죽음에서 再生으로」라는 테마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먼저, 水夫의 悲劇을 초래한 「알바트로스 殺害」라는 行爲의 罪惡性 및 코울리지의 罪惡觀을 살펴보고, 다음에 罪에 대한 罰과 贖罪의 과정이 作品에서 어떻게 詩化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이 論文의 再生이란 테마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달·뱀·비의 이미지들이 갖는 人類·宗敎學的 또는 神話的 意味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알바트로스(the Albatross) 殺害의 罪惡性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以下에서는 *The Mariner*로 略記)의 해석이 있어서 빈번히 거론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一見 하찮은 세에 지나지 않는 알바트로스의 殺害가 어떻게 해서 그토록 끔찍한 결과들을 빚으며, 이 살해행위가 무엇 때문에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알바트로스가 살해되는 제1부의 총 82行 중에서 살해 행위를 묘사한 귀절은 단 2行,

“—With my crossbow

I shot the ALBATROSS.”

뿐이다. 그리고 作者 코울리지는 이 귀절에 붙인 註釋에서 老水夫가 「손님을 접대하는 예의를 깨고 무자비하게」(inhospitably) 이 경건한 吉鳥를 죽였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評者들은 水夫의 이같은 행위를 「변덕스럽고 무모한」(“wantonly and recklessly”)⁶⁾ 또는 「극히 변덕스럽고 이유가 없는」(“quite wantonly and for no reason”)⁷⁾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까닭 없이 또는 분노에 의해서」(“in a fit of irration or anger”)⁸⁾ 저질러진 水夫의 알바트로스 살해 행위에는 의도적인 犯罪性이 개입돼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살해된 對象은 인간도 아닌, 하찮은 새이다. 도대체가 罪가 성립될 수 없을 듯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뒤이어 나타나는 끔찍한 징벌과 복수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일단 알바트로스를 살해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假定을 수락한다면, 그 행동의 결과는 속명적으로 뒤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假定은 「*The Mariner*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어려운 假定일 것」(“perhaps the hardest assumption which *The Ancient Mariner* demands of us”)⁹⁾라고 C.M. 보우라는 말하고 있다.

4) J.L. Lowes, *The Road to Xanadu* (London, 1931), pp. 74ff, quoted in Abrams, op. cit., p. 218.

5) Abrams, op. cit., p. 218.

6) C.M. Bowra, *The Romantic Imagination*. Oxford-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 69.

7) Graham Hough, *The Romantic Poet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64, p. 60.

8) Bowra, op. cit., p. 57.

9) Ibid., p. 58.

그럼에도 불구하고 水夫의 행위는 「심오한 自然의 神聖의 모독」(“violation of a deep natural sanctity”),¹⁰⁾ 「本來的 自然에 거역한 原初의 범죄」(“primordial crimes against original nature”)¹¹⁾ 등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알바트로스의 殺害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유하는 견해까지도 있다.¹²⁾ 그 결과, 水夫는 自然으로부터 괴리되며, 뿐만 아니라 동료 船員들로부터도 소외되고 고립된다. 이것은 곧 社會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水夫의 알바트로스 殺害 행위를 正當化한(“Then all averred, I had killed the bird/That brought the fog and mist./Twas right, said they, such birds to slay,/That bring the fog and mist.”) 船員들은 이 범죄의 共謀者들로서 죽음을 당한다(“They dropped down one by one.”).

여기서 잠시 보우라의 견해를 들어보자.

“We may begin by asking why there is all this “pothor about a bird”, but we end by seeing that, whatever the pothor may be, it involves grave questions of right and wrong, or crime and punishment, and, no matter how much we enjoy the poetry, we cannot avoid being in some degree disturbed and troubled by it. Now this is surely the effect which Coleridge wished to produce. Through his concrete story he reaches to wider and vaguer issues...”¹³⁾

보우라는 여기서 알바트로스의 殺害가 그 직접적인 叙述의 次元을 넘어서 보다 심오한 次元의 무엇인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코울리지는 『하나의 象徴이 個體 속의 特殊性, 특수성 속의 一般性, 일반성 속의 宇宙性的의 半透明, 그리고 무엇보다도 時間性을 통한, 時間性 안에서의 永遠性的의 半透明에 의해 특징지어진다』(“A symbol...is characterized by a translucence of the special in the individual, or of the general in the special, or of the universal in the general; above all by the translucence of the eternal through and in the temporal.”)¹⁴⁾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이같은 象徴의 源泉으로서 超自然的인 것을 그의 詩에서 탐구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있어서 그는 「낫고 평범한」 세계를 추구했던 워즈워스보다 한층 形而上學的이고 次元이 높다 하겠다.

앞서 지적했듯이, 水夫의 알바트로스 殺害는 外見的으로 보아 거의 罪惡性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觀點에서 볼 때 狀況은 달라진다.

보우라는 水夫의 행위가 「변덕스럽고 무모하게」 자행했다는 점을 지적, 『그 動機의 불확실성이 犯罪의 본질적 不合理性 또는 단순한 意志의 邪惡性을 보여 준다』(The uncertainty of the motive illustrates the essential irrationality of crime, or a simple perversity of the will.)¹⁵⁾고 평했다. 보우라는 이어 코울리지가 당시 新플라톤주의적인 萬物의 兄弟愛 思想에 젖어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은 水夫가 「신성한 生命의 法則」을 깨뜨렸으며, 『그의 行爲 속에서 우리는 人間性和 세계의 질서정연한 體制를 거

10) David Daiches, *A Critical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Vol. II. New York: The Roland Press Company, 1960, p. 896.

11) Harold Bloom, *The Ringers in the Tower: Studies in Romantic Tradition*.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p. 125.

12) Abrams, op. cit., p. 203.

13) Bowra, op. cit., p. 67.

14) Coleridge, *The Statesman's Manual* (London, 1816), p. 437, quoted in Bowra, op. cit., p. 67.

15) Bowra, op. cit., p. 69.

역하는 많은 범죄의 본질적 어리석음을 본다.』(“In his action we see the essential frivolity of many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 ordered system of the world……”)16)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알바트로스의 殺害라는 水夫의 行爲는 깊은 象徵的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象徵에 관한 코울리지의 생각이 여기서 실제로 詩的 표현을 얻고 있는 것이다.

水夫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또다른 기준의 하나는, 水夫의 이야기처럼 「正午의 피빛 太陽」이 灼熱하는 大洋의 한복판, 「물, 도처에는 물」이지만 「마실 물 한 방울 없는」, 눈에 보이는 生物體라고는 오직 「끈적거리는 바다 위를 기어다니는 역겨운 것들」뿐인 극한의 상황에서 「神의 이름으로」 환영된 「기독교적 靈魂인 알바트로스」가 단순히 한 마리의 새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A Study of *The Ancient Mariner* and of the Archetype” 라는 論文을 통해서 하나의 經驗이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남기는 原型의 결과, C.G. 융의 용어를 빌면, 「原初의 이미지들」(“primordial images”)이 코울리지의 *The Mariner*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훌륭하게 분석한 모드 보드킨 女史는 한 친구의 실제 경험을 통해 水夫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친구의 경험은, 자신이 실제로 茫茫大海를 航海하던 중 인간의 접근을 두려워하면서도 배(船) 위에 내려 앉고 싶어하는 비둘기 한 마리를 보았을 때 異域萬里 大洋 중의 나그네인 자신의 가슴 속에서 그 새에 대한 憐憫의 情이 솟아 올랐으며, 그 새에 대해 同族의인 生命의 한 型態로서 同情心을 느꼈다, 때문에 極海의 人跡 罕見 寂寞 가운데서 친절과 환대를 기대하고 또 받았던 알바트로스(“...an Albatross, /Through the fog it came; /As it had been a christian soul, /We hailed it in God’s name”)에 대한 水夫의 살해 행위에서 生命에 대한 범죄라는 恐怖感을 느꼈다는 것이다.17) 이렇게 해서 水夫의 행위는 한 讀者의 共感을 얻고 있으며, 이같은 共感들의 集積은 「同一한 類型의 수많은 經驗들의 心理的 양금」(“psychic residua of numberless experiences of the same type”),18) 즉 하나의 原型(archetype)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같은 原型의 經驗은 어느 한 個人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祖上들에게 일어났고 또 그의 後孫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며, 그같은 原型들은 인간 두뇌의 構造 속에 「個人的 經驗의 先驗的 決定素들」(“a priori determinants of individual experience”)19)로서 상속된다. 코울리지의 象徵論은 보드킨의 비평에서 또 하나의 理論的 뒷받침을 발견한다.

The Mariner 의 水夫는 「방랑하는 유대인」(the wandering Jew)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관점에서 水夫의 罪악은 「방랑하는 유대인」의 罪악과 결부되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동생 아벨을 살해한 카인의 罪악과도 비유된다. 「방랑하는 유대인」의 죄는 인간에 內在하는 神性을 거부한, 靈魂에 대한 죄이며, 카인의 죄는 인간 관계를 깨뜨린 죄이다. 이에 비해 水夫의 죄는 인간과 새 간에서 발생하는, 앞서 지적된 것처럼, 自然에 거역한 죄이다. 이같은 형태의 罪악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울리지의 罪에 대한 관념을 잠시

16) Ibid.

17) Maud Bodkin, *Archetypal Patterns in Poetry: Psychological Studies of Imagin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p. 57. See also D. W. Harding, *Experience into Words*.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Ltd, 1974, p. 67.

18) Bodkin, op. cit., p. 1.

19) Ibid.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⁰⁾

프로이트의인 心理學을 도입, 코울리지의 詩 세계 접근을 시도한 데이비드 베레스(David Beres)는 詩人의 인생 經歷이 詩作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 「詩人의 인생 역사를 통해 詩人의 幻想을 理解」(“to understand the poet's fantasy in relation to his life history” 해보려는 시도를 「꿈, 비전, 詩」(“A Dream, a Vision, a Poem”)라는 論文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베레스는 코울리지의 인생 역사에서 그의 예술을 배태시킨 無意識의 動機와 그의 무의식적인 精神活動의 증거를 찾아내고자 한다. 그같은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코울리지는 일찌기 자신의 어머니가 「극히 兩面的인 對象」(“an intensely ambivalent object”)임을 발견하고, 그 자신 兩面性의 문제로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레스의 주장에 의하면, 코울리지가 자신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있다고 말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코울리지는 충족되지 못한 사랑의 욕구를 경험, 「따스함과 사랑과 음식」을 결실히 추구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對人關係에 있어서 결코 충족을 못하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幼兒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²¹⁾ *The Mariner*에 대해 역시 心理主義의인 접근을 하고 있는 D.W. 하아딩은 코울리지의 이같은 어린시절의 체험의 결과 그가 「친절과 애정에 대한 어떠한 명백한 輕視에 대해서도 罪책감을 느끼는 극단적 예민성」(“extreme susceptibility to feelings of guilt about any apparent disdain of friendliness and affection”)²²⁾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이같은 두가지 견해는 코울리지의 죄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베레스는 또 코울리지가 어느 한 편지에서 자신은 군 치즈를 떼어 놓아 쥐를 잡는다는 것은 「손님 접대 법칙의 더러운 위반」(“Oh foul breach of the laws of hospitality”)²³⁾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일이 있음을 지적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코울리지의 죄악감에 대한 태도 및 쥐라는 徵物에 대한 그의 태도와 관련된 언급이다. 여기서 다시 코울리지의 주요한 思惟 태도 한가지를 더 돌이켜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젊은 시절부터 老年에 이르기까지 코울리지는 一元論者(Monist)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무언가 위대한 것, 하나이고 不可分인 그 무엇을 보고 또 알고 싶어하는 渴求를 느끼는」(“feels as if it ached to behold and know something great—something one and indivisible”)²⁴⁾ 精神의 소유자였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세계로부터 斷絶되고 疎外된다는 것, 「分裂의 悲慘」(“wretchedness of division”) 속에 빠져든다는 것은 코울리지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그는 일체의 分裂은 죽음의 행동인 것으로 거듭거듭 묘사하고 있으며, 그같은 分裂의 源泉은 知性이었다. 인간은 소위 이 知性에 의해서 自然과 精神을 對立시키고, 客體와 主體를, 事物과 思想을, 죽음과 삶을 대립시킨다. 코울리지는 이같은 思惟 태도가 生命力 있고 生産的인 對立체계를 主體와 客體, 精神과 소외된 自然 간의 절대적이고 메꿀 수 없는 斷絶로써 代置해버린 哲學, 특히 現代의 機械論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것은 自然과의 敵對關係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코울리지는 모든 生命의 세

20) David Beres, “A Dream, a Vision, a Poem”, *Yearbook of Psychoanalysis*, VII, ed. S. Lorand (New York, 1952), quoted in Harding, op. cit., p. 64.

21) cf. Harding, op. cit., p. 65.

22) Ibid., p. 68.

23) Ibid., 66.

24) Coleridge's Letter to John Thelwall, Oct. 14, 1797, *Collected Letters*, I, p. 349, quoted in M.H. Abrams, *Natural Supernaturalism*.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71, p. 267.

계에서「가장 일반적인 法則」은「多極性, 또는 自然의 본질적 二元性」이라고 믿었다. 여기서 多極性, 또는 自然의 본질적 二元性은 하나의 過程 속에서「個體化와 結合性을 同時에」추구하는 性向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이 過程에 의해서「命題와 反命題, 立場과 逆立場」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綜合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이 코울리지의 신념이었다. 이렇게 볼 때, 코울리지가 사용한 의미로의 多極性 또는 二元性이라는 用語는 自體로써 充足되는 그런 概念이 아니라, 統一성과 大綜合을 指向하는, 그리고 이같은 목표를 前提로 한다는 개념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코울리지가 一元論者였다는 말은 그가 正, 反, 合의 과정을 통해 多極性과 二元性을 극복하는 一元性을 추구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In the identity of the two counter-powers, Life subsists; in their strife it consists: and in their reconciliation it at once dies and is born again into a new form."²⁵⁾

「두개의 對立的인 分力이 실질적으로 상호침투 작용을 하며, 이 兩者를 포용하는 보다 높은 제3의 힘을 發生시킨다」("the two component counter-powers actually interpenetrate each, and generate a higher third, including both the former")²⁶⁾는 것, 이것이 코울리지의「統一性 속의 多極性」("multeity in unity")理論이고, 이것이 곧 그의 思想의 核心을 이루는 根幹이다.

코울리지에게 있어서, 藝術의 주요한 가치 중 하나는 예술이 自然을 人間化시키고, 그럼으로써 人間 精神을 위해 소외되었던 自然을 회복시키는 일을 돕는 것이었다.

"(Art) is the mediatrix between, and reconciler of, nature and man. It is, therefore, the power of humanizing nature, of infusing the thoughts and passions of man into every thing which is the object of his contemplation."²⁷⁾

이와같은 여러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알바트로스의 殺害가 인간과 自然의 神聖한 관계를 파괴한 죄악으로서 중대한 象徵性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轉落을 分裂과 疎外로 보고 구원을 和解로 보는 코울리지의 견해는 그가 詩에서 다루는 主題 및 이미지들과 일관성을 갖는다. 먼저 水夫가 경험하는 罰과 贖罪의 過程을 보고 다음에 이같은 점들을 살펴보자.

2. 罰과 贖罪

水夫는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거의 罪가 없음에도, 自身과 自然의 生命 간의 유대를 깨뜨린 결과로 인간이 저널할 수 있는 糞惡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죽음을 당한다. *The Mariner* 의 제2부에서 水夫에 대한 징벌이 시작된다. 배(船)는 太平洋 한복판에 멈추어 서 微動도 하지 않고, 水夫와 船員들은 내리치는 暴炎 아래서 극심한 渴症에 시달린다. "Water, water, everywhere, / And all the boards did shrink, / Water, water, everywhere, /

25) Coleridge, *The Theory of Life*, ed. Seth B Watson (London, 1848), pp. 50-52, quoted in *Natural Supernaturalism*, p. 267.

26) Appendix B, *The Statesman's Manual in lay sermons*, pp. 94-95, quoted in *Natural Supernaturalism*, p. 268.

27) Coleridge, "On Poesy or Art", quoted in *Natural Supernaturalism*, p. 269.

Nor any drop to drink." (*The Mariner*, 11, 119~122. 以上 특별한 언급이 없는 詩 인용은 이 作品出典임). T. S. 엘리엇은 그의 『荒蕪地』(*The Waste Land*)에서 『샘물/바위 틈에 고인 물/다만 물소리만이라도 있다면/...바위 위로 흐르는 물소리가 있다면/...그러나 물소리는 없다』고 썼지만 코올리지가 그린 水夫의 狀況은 「물의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극도의 처절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文學에 있어서 生命의 象徵性을 갖는 물과 인접하여 있으면서도 이로부터 거부되고 있는 水夫의 狀況은 그의 生命으로부터의 소외 상태, 다시 말해서 水夫의 정신적인 生中死(death-in-life)의 狀態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茫茫한 大海 위에서 보이는 것은 오직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 끈적끈적한 것들」(slimy things)과 밤이면 날뛰는 「죽음의 도깨비불들」(death-fires)뿐, 죄의 직접적 결과가 「갈증으로 죽어가는, 위협적인 惡鬼들에 쫓기는 宇宙의 이미지」(the image of a universe dying of thirst and haunted by menacing phantoms)²⁸⁾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같은 극적인 狀況을 제시하는 데 보여준 코올리지의 技法을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水夫의 알바트로스 殺害를 마지막 行으로 끝나는 제1부에 뒤이어 전개되는 제2부의 첫머리는 극히 일상적인 狀況의 묘사로 시작되고 있다. 「해는 이제 오른쪽에서」 떠올라 「왼쪽에서/바다속으로」(11, 83~86) 내려갈 뿐이었다.

비록 해가 여전히 안개에 가리워지기는 했지만, 배가 「그 조용한 바다」(that silent sea)인 太平洋에 진입했을 때 배는 順風에 돛을 단듯 快走해나간다.

"The fair breeze blew, the white foam flew,
The furrow followed free ;
We were the first that ever burst
Into that silent sea."
(11, 103—106. My italics.)

배의 順航을 표현하는 앞2行은 頭韻法(alliteration)을 사용, 繪畫의인 묘사와 함께 音樂의인 리듬까지 가미시키고 있다. 그러나 바로 뒤를 잇는 詩行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微風은 그치고 돛들은 떨어지고」 이어 태양은 피빛으로 물든다("The bloody Sun, at noon."). 赤道의 正午, 태양의 灼熱하는 뜨거움은 웅당 bloody하고 하늘을 「구리빛」으로 돌변시키겠지만, 뒤를 잇는 詩行들이 보여주는 悲劇的 狀況을 앞서 인용한 詩行들의 狀況과 결부시킬 때, 코올리지는 'bloody'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 두 狀況을 劇的으로 並置시키는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And every tongue, through utter drought,
Was withered at the root ;
We could not speak no more than if
We had been choked with soot."
(11, 135—138. My italics.)

「피빛」으로 물든 태양이 내리는 저주이다. 『單語들은 意味와 함께 靈魂도 가지고 있다. 그 영혼은 詩인이 그 單語를 사용할 때 나타난다.』²⁹⁾ 「피빛」은 「붉은」 색이며, 「붉은」 색은 인류

28) Bowra, opp. cit., p. 69.

29) Bodkin, op. cit., 44.

의 역사를 통해 「恐怖의 靈魂」(a soul of terror)³⁰⁾을 갖는다. 「피빛으로 물든 태양」은 곧 「공포의 영혼」이다. 위에 인용된 135~138行은 各行이 모두 t 또는 f의 破裂音으로 끝남으로써 그 상황의 급박함과 처절함을 가증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다시 엘리엇에게서 우리는 비슷한 技法을 볼 수 있다.³¹⁾

"My feet are at Moorgate, and my heart
Under my feet. After the event
He wept. He promised "a new start."
I made no comment. What should I resent?"
(*The Waste Land*, 11, 296-299. My italics.)

情炎의 소용돌이가 지난 뒤의 처절한 허탈감과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쫓기는 듯한 급박한 心情이 各行을 끝맺는 "t"음 속에서 강조되고 있다. 코올리지는 앞서 인용된 103~106行과 135~138行에 音樂的 要素를 도입함으로써 劇的 對照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더 지적해줄 점은, 83~86行의 日常的인 태양의 이미지 돌변이다. 이 「돌변」이라는 단어는 정확치가 못하다. 코올리지는 이미 이같은 변화의 예비적인 暗示를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Nor dim nor red, like God's own head,
The glorious sun uprist:" (11, 97-98)

험프리 하우스의 분석에 의하면, 이 귀절은 (a)神의 머리는 칙칙하고 붉다, 그러나 찬란한 태양이 그것과 같지 않게 떠올랐다, b)찬란한 태양이 칙칙하거나 붉지 「않은」神의 머리 처럼 떠올랐다는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red"위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b)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³²⁾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神의 머리가 칙칙하느냐 붉느냐가 아니고, 「태양과 붉음」의 관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빛은 붉은 색이다. 여기서 코올리지는 "red"와 "sun"을 결부시킴으로써 앞으로 나올 "bloody sun"을 미리 암시한 것으로 보고 싶다. 赤度の 태양이 아침 안개 속에서는 「찬란히」 떠올랐지만 正午에 접근할수록 「붉게」 뜨거워져 「피빛」으로 달아오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붉게」 「피빛」으로 물든 태양 아래의 참혹한 고통은 위에 차거운 얼음과 서리와 연관되는 「창백한 달빛」("white moonlight")이 주는 위안과 다시 對照를 이루게 된다. 코올리지는 이같은 대조를 통해서 강렬한 情緒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색갈語」(color-word)가 전달하는 情緒가 강렬할 경우 「색갈語」는 하나의 이미지로서의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³³⁾ 이렇게 볼 때, *The Mariner*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태양과 달은 각기 「고통과 불행」, 「위안과 구원」의 의미를 갖는 이미지들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를 얻는다.

코올리지는 詩의 모든 부분들이 부분으로서의 즐거움을 줌과 동시에 有機的인 긴밀한 상호 작용에 의해 총체적인 효과를 산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쾌감을 추구하는 다른 文學形式들과 구별된다고 말한바 있다.³⁴⁾ 우리는 앞서 언급한 몇가지 點, 다시 말해서 대조적인 狀況들과 음악적인 효과와, 색갈의 이미지化 등 여러가지 技法에 의해서 코올리지가 뛰어난 詩的 構成

30) Ibid.

31) T.S. Eliot, *The Waste Land*, 11, 296-299.

32) *English Romantic Poets*, p. 226.

33) Bodkin, op. cit., 44.

34) *Biographia Literaria*, ch. 14.

을 성취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코올리지는 자신이 표방한 批評理倫을 실제의 詩作을 통해 부단히 실험했다고 말할 수 있다.

*The Mariner*의 제3부에서 水夫는 동료 船員들은 물론 神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철저한 고독과 소외감, 死中生(Life-in-Death)을 경험한다. 코올리지가 설정한 熱帶의 바다라는 배경은 사회와의 絶緣, 고독, 소외 그리고 지옥 불(炎) 같은 가혹한 시련을 상징하는 훌륭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제4부는 저주로부터의 회복과 구원의 章이다.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고독의 死中生의 지경에서 헤매던 水夫는 神秘스럽기도 물뱀(water snakes) ("the slimy things)들을 축복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unaware"). 저주의 상징인 죽은 알바트로스가 水夫의 목에서 떨어져나간다. 제5부에서는 生命과 再生을 상징하는 비(雨)가 내리고 水夫의 갈증은 해소된다("My lips were wet, my throat was cold,/My garments all were dank:/Sure I had drunken in my dreams/And still my body drank."—ll. 301~304). 이어 비를 물고 오는 바람, 정지한 배를 물고갈 바람, 「하늘의 空氣는 별안간 生氣」를 먹고 「창백한 별들이 그 새에서 춤을」 춘다, 천둥번개에 맞추듯이, 모두가 水夫의 死中生의 상태를 깨고 새 生命의 탄생을 예시하는 소란스러운 움직임의 소리, 모습들이다. 이 새 生命 탄생 前後의 요란스러움, 못 自然現象의 共感, 이것들은 한 生命의 탄생의 의미와, 코올리지가 그토록 갈구했던 인간과 자연 간의 본질적 交感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自然과 人間의 유대,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知性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해줄 수도 없는 영원한 神秘인지도 모른다. 굳이 聖書의인 의미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추하고 혐오스런 動物인 (물)뱀을 축복한 水夫의 心理 역시 하나의 神秘이다. 앞서의 모드 보드킨의 (친구의) 설명이나, 물뱀이 실제로는 헤엄치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는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水夫의 물뱀 축복 행위는 物理的인 次元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水夫의 행위는 역시 不可思議한 動機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갖는 「관계」의 神秘, 生命의 神秘, 宇宙의 神秘는 인간의 知性에 의해서, 意識의인 노력에 의해서보다는, 본능적이고 原初的인 순수한 意識에 의해서만, 「無意識의으로」 ("unaware")³⁵⁾만이 이해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같은 神秘는 萬物은 輪廻한다, 萬物은 佛性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萬物은 神聖하다는 佛敎的 神秘主義³⁶⁾에 의해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水夫는 死中生의 상태를 깨고 再生할 근거를 마련한다(비록 이 再生의 과정에 좌절이 뒤따르는 하지만, *The Mariner* 제6부 참조). 그레이엄 하우스는 水夫의 再生을 「心理的인 再誕生」 ("a psychic rebirth")³⁷⁾으로, 레이몽 베누와(Raymond Benoit)는 분열된 「2중적 意識의 統一을 향한 歸鄉길」("the journey home to the unity of the twofold consciousness")³⁸⁾의 始作으로 해석했다. 하우스의 해석은, 인간과 모든 문화가 生中死(living death)의 상태에서 終末을 고하지 않는다면, 水夫가 물뱀을 축복했을 때 일어난 일이 모든 인간과 文化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再生이라는, 융(Jung)과 모드 보드킨으로 이어지는 再生神話(rebirth myth)에 입각한 것이고, 베누아의 입장은, 水夫의 再生이 참된 自我(True

35) About the poetic meaning of the word 'unaware', cf. Daiches, op. cit., p. 896, *English Romantic Poets*, pp. 204-5 (for Wilson Knight's) and ibid., p. 223 (for Humphry House's).

36) It is well known that Buddhism forbids killing any form of life. The mariner's killing of the Albatross could be considered in this viewpoint, too.

37) Hough, op. cit., p. 63.

38) Raymond Benoit, *Single Nature's Double Name*. The Hague, Paris: Mouton, 1973, p. 27.

self)와 거짓된 自我(False self)간의 분열로 갈등하는 인간 內面的 싸움, 그의 표현을 빌면, 「회한의 意識」(“contrite consciousness”)에서 참된 自我가 승리를 거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헤겔(Hegel)의 해석이다.³⁹⁾ 해럴드 블롬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여, *The Mariner*는

“Coleridge’s major venture into Romantic mythology of the purgatorial self trapped in the isolation of a heightened self-consciousness”⁴⁰⁾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들은 모드 보드킨의 同調를 얻고 있는데, 보드킨은 에이버 크롬비(Abercrombie) 교수의 설명을 빌어, *The Mariner*를 「환상적 모험 세계에 투사된 內的 체험」(“the inner experience projected into its fantastic adventures”)⁴¹⁾이 實體를 이루고 있는, 「그야말로 낭만적인 詩」라고 평했다. 에이버크롬비 교수는 內面的 體驗으로서의 浪漫主義를 이렇게 定義하고 있다.

“A poet shows the phase of romanticism so far as inner experience becomes for him the one genuine reality, and outer existence is transfigured by him into a mode of his own being.”⁴²⁾

內的 체험의 實體化, 外部 存在의 人間 存在 樣態化, 自然의 人間化 등은 모두가 유사한 概念들인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같은 목표들은 곧 코울리지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됨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3. 달(月), 뱀(蛇), 비(雨)의 再生象徴體系

레이몽 베누아는 “The Contrite Consciousness of the Ancient Mariner”에서, *The Mariner*에는 해(the sun)에 관한 언급이 11번, 달(the moon)에 관한 언급이 14번, 해와 달에 관한 언급이 도합 25번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이 작품은 해, 달과 함께 뱀과 비(雨)를 중심적 이미지로 하여 이 작품의 중심적 테마인 죽음과 再生의 神話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天體의 중심적인 一部를 이루는 해와 달은 水夫의 自我分裂(self-division)의 外化(externalize)를 암시한다. 그같은 例로서 水夫가 「거짓된 自我(false self)의 소리에 注意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면, 달에 관한 언급(reference)이 증가하며, 반면 제7부에서는 해나 달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달과 해로 象徴되는, 상호충돌적인 「참된 自我」와 「거짓된 自我」가 辯證法的인 和合을 얻었기 때문이다. 헤겔의 표현을 빌면, 『이같은 過程의 결과는 정확히 이 2중적 意識의 統一』이라는 것이다.⁴³⁾ 베누아는 이밖에도 本論 전개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주었다. 그것은 그가 이같은 精神現象의 理解를 위해 人類·宗敎學者인 머시어 엘리에이드(Mircea Eliade)의 『比較宗敎의 形態』(*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중 「달·뱀·비」의 形態를 참조하라⁴⁴⁾는 脚註를 붙여놓은 것이었다. 엘리에이드

39) See *ibid.*, pp. 23-29, “The Contrite Consciousness of the Ancient Mariner”, esp. pp. 25-27.

40) Bloom, *op. cit.*, p. 125.

41) Bodkin, *op. cit.*, 26.

42) Lascelles Abercrombie, *Romanticism*, Martin Secker, 1927, quoted in Bodkin, *op. cit.*, p. 26.

43) cf. Benoit, *op. cit.*, pp. 26-27.

44) *Ibid.*, p. 27.

는 이 著書에서 「天空의 儀禮와 象徵」, 太陽과 달(月)과 물(水)의 심볼리즘, 「再生의 象徵과 儀禮」, 「象徵의 構造」 등을 집약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엘리에이드의 또다른 著書 『永遠回歸의 神話, 또는 宇宙와 歷史』 (*The Myth of Eternal Return, or Cosmology and History*) 역시 이같은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들 두 著書를 통해서 엘리에이드가 모색했던 것은 人間 存在의 起源 이래로 인간이 어떻게 하여 「살과 죽음과 再生의 神話」를 形成해내 왔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水夫의 정신적 죽음과 고뇌와 再生의 체험을 엘리에이드의 觀點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水夫가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 死中生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轉機는 그가 물뱀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마련된다. 많은 評者들은 水夫의 이같은 行爲(또는 意識)가 「달빛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데 공통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The moving moon went up the sky,
And nowhere did abide :
Softly she was going up,
And a star or two beside... (11. 263—266)

그리고 이 귀절 곁에 붙여진 코올리지의 註釋은 다음과 같다.

"In his loneliness and fixedness he yearneth towards the journeying Moon, and the stars that still sojourn, yet still move onward ; and everywhere the blue sky belongs to them, and is their appointed rest, and their native country and their own natural homes, which they enter unannounced, as lords that certainly expected and yet there is a silent joy at their arrival."

孤獨과 固着 상태에 빠져있는 水夫는 달과 별들의 자유로운 運行을 동경한다. 그것들에게는 「그 푸른 蒼空」에 대한 歸屬感이 있고 「지정된 휴식」이 있고 故國과 家庭이 있다. 그러나 지금 水夫에게는 蒼空도 휴식도 故國도 家庭도 거부되어 있다. 7일 밤낮을 暴戾와 腐敗에 시달려온 水夫는 「부드러이」 떠오르는 달과 별들의 조용한 運航에서 平和와 宇宙의 秩序와 차거움에 대한 강렬한 情緒를 경험한다. 이 詩에서 달은 또 이슬, 서리와 결부되어 언급돼 「차거움」의 이미지를 첨가함으로써 해와 달의 「뜨거움」과 「차거움」이라는 새로운 對照를 이룬다. 208行~211行에서는

"From the sails the dew did drip...
Till clomb above the eastern bar
The horned Moon, with one bright star
Within the nether tip."

로 이슬과 초생달이, 또 267~268行에서는

"Her (the Moon's) beam bemocked the sultry main,
Like April hoar-frost spread ;"

로 달과 서리와 酷暑(또는 태양)가 결부되고, 마침내 299~300行에서는 "I dreamt that they were filled with dew:/And when I awoke, it rained."라 함으로써 달, 이슬, 서리는 비(雨)라는 또다른 이미지와 결부되어 本論에서 다루고 있는 「달(一뼀)—비」의 象徵體系의

一部를 形成한다. 詩의 部分 部分은 하나의 총체적 효과를 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코올리지의 소위 「有機論」은 여기서도 실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달-뱀-비의 상징체계를 살펴보자.

달의 기울고 참과 다시 기울고 참은 古代 인간들에게 죽음과 再生간의 순환적 패턴을 가르쳐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죽음과 再生의 이같은 순환적 패턴은 再生神話를 낳는다. 죽음은 곧 새 삶(再生)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달은 再生神話의 중심적 심볼이 된다. 그리고 古代人들은 이 再生의 기본요건으로서 혼돈(chaos), 「오르지」(orgy), 물(water), 어둠(darkness)으로의 복귀가 필요한 것으로 믿었다⁴⁵⁾고 엘리에이드는 말하고 있다. (우리는 *The Mariner*에서 이같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詩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結婚式儀禮는 「오르지」의 요소로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죽음은 다른 종류의 삶」을 의미하게 되었고, 더우기 「죽음 가운데의 삶」은 달의 「歷史」에 의하여, 또 大地의 「歷史」에 의하여 有效하게 되고 價値가 부여되므로 死者는 再生하기 위해, 따라서 새로운 存在에 필요한 힘을 획득하기 위해, 달로 가거나 地下로 되돌아가거나 한다. 많은 月神들이 地下의 神인 동시에 죽음의 神이 된다.⁴⁶⁾ 여기서 달은 『모든 動物의 몸과 幼胚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것을 解體하기도 한다.』⁴⁷⁾는 觀念이 형성된다. 「半月의 葬禮의 象徴」이 유럽 全土에서 자주 보인다⁴⁸⁾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The Mariner*의 제3부에서 船員들이 하나씩 쓸어져 죽을 때 달은 「뿔달린 달」(“the horned Moon”), 「별에 쫓기는 달」(“the star-dogged Moon”)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뿔달린 달 즉 半月 또는 초생달은 위에 언급된 「半月」의 이미지와 합치됨으로써 「달의 葬禮의 象徴」으로서의 機能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生命과 죽음이라는 달의 2중적 象徴性이 코올리지의 想像 속에서 具現되고 있는 예라 보겠다.⁴⁹⁾ 코올리지는 이 詩의 한 寫本에 적어넣은 노트(note)에서 『별이 달을 뒤쫓을 때마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⁵⁰⁾는 것은 船員들 간에 흔한 迷信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天體의 運航에 관한 神話的 해석과 코올리지가 언급한 迷信이 일치하고 있음은 우연한 일이라고 봐넘겨버릴 수 있을 것인가.

달의 상징은 뱀과 비(雨)의 상징과 연결된다. 『宗教形態論』에는, 「달의 動物인 뱀」을 살해했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했으나, 唯一의 生存者에 의해 「새로운 人類를 발생」시킨 다야크族의 傳說을 소개하면서 달·뱀·洪水(雨)의 관계에 언급하고 있다.

「뱀은 달의 屬性을 갖는다.」⁵¹⁾ 뱀은 또 그 영원한 변화와 변형을 통한 再生과, 女性의 不妊을 방지하는 등 풍요의 源泉이라는 俗信과 함께 다시 달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것이다. 특히 뱀은 地下에 서식하면서 「死者의 靈魂을 體顯한다는 點에서 「달의 葬禮的」 이미지와 결부되는 것이다.

윌슨 나이트는 *The Mariner*에 등장하는 water snake가 「性的인」(“sexual”) 함축성을 내

45) Mircea Eliade, *The Myth of Eternal Return, or Cosmos and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p. 88.

46) cf. Ibid.,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New York, 1958, tr. into Korean by Lee Eun Bong, Seoul: Hyung Sul Publishers, 1979, p. 191.

47) Firmicus Maternus, *De Errore*, iv. i, 1, quoted in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p. 192.

48) Ibid., p. 194.

49) cf. *English Romantic Poets*, p. 232 on the dual character of the moon and imagination.

50) Lowes, op. cit., p. 182 note, quoted in Harding, op. cit., pp. 87-88.

51)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p. 189.

포하며 그리고 제3부에 나오는 「死中生의 모습(Life—in—Death figure)은 붉은 입술과 노란 머리와 창백한 문둥이의 피부를 가진 천박한 媚女」⁵²⁾라고 말했다. 코올리지가 조셉 코틀에게 보낸 서한은 이를 힘차게 부정한다.

“The common end of all *narrative*, nay of *all*, Poems is to convert a series into a *Whole* : to make those events, which in real or imagined History move on in a *straight* Line, assume to our Understanding a *circular* motion—the snake with its Tail in its Mouth.⁵³⁾

歷史의 直線的인 움직임을 순환적인 움직임으로 바꾸어놓는 것, 입에 꼬리를 문 뱀의 形像이 상징하는 永遠回歸의 可能性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인간과 자연의 原初的 關係를 회복함으로써 인간의 영원한 再生 神話를 구현하고자 했던 코올리지의 文學理念이었고, 本論이 크게 힘입고 있는 엘리에이드의 『永遠回歸의 神話』가 규명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그리고 이것이 M. H. 에이브럼즈가 그의 主著 『自然的인 超自然主義』 (*Natural Supernaturalism*)를 통해 전개하고 있는 인간 不滅의 「循環」의 浪漫主義이다.

비(雨)가 달의 영향을 받는 干滿과 밀접한 關係를 갖는다는 점에서 물은 달과 연관된다. 「달은 물 가운데 있다」⁵⁴⁾, 「달로부터 비가 내린다」⁵⁵⁾라든가, 물은 달의 지배를 받는다는 생각(“Still as a slave before his lord, / The ocean hath no blast ; / His great bright eye most silently / Up to the Moon is cast—” —*The Mariner*, ll. 414~417)은 印度的 思辨의 두 中心의 思想이다. 또 中央브라질의 어떤 부족 간에는 月神의 딸이 「물의 어머니」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다.⁵⁶⁾ 月相의 변화에 의해 비가 내린다는 것은 古來이래로 퍼져 있는 생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멕시코인들의 달에 관한 생각은 本論의 主題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준다. 그들은 달이 大洪水를 일으킨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같은 災禍는 일반적으로 天體에 대해 모욕을 주거나 祭儀式的 禁止事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정신적 타락, 規範의 喪失, 혹은 宇宙의 리듬을 무너뜨린 罪에 의해 생긴 災禍』라는 것이다.⁵⁷⁾ 코올리지가 人間의 自然으로부터의 乖離, 人間의 轉落은 機械主義的인 思考라는 「정신적 타락」에서 起因하는 것이라고 보았음은 앞서 언급했으며, 水夫의 悲劇은 알바트로스 殺害라는 행위로 나타난 「우주적 리듬의 파괴」에 대한 응징이라는 점에서 評者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살펴보았다.

이렇게 하여 엘리에이드의 「달—뱀—비」의 再生象徴 체계는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같은 상징체계가 *The Mariner*의 「죽음에서 再生으로」라는 테마를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結 語

52) *English Romantic Poets*, p. 207.

53) Coleridge's Letter to Joseph Cottle, Mar. 7, 1815, *Collected Letters*, IV, 545, quoted in *Natural Supernaturalism*, p. 271.

54) *Rig Veda*, i, 105, 1, quoted in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p. 177.

55) Aitareya Brahmana, viii, 28, 15. quoted in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p. 177.

56) Briffault, *The Mothers*, London, 1927, Vol. ii, pp. 632ff, quoted in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p. 178.

57) *Ibid.*, 180.

以上에서 우리는 *The Mariner*의 水夫가 겪은 罪와 죽음과 再生의 경험을 통해서 水夫가 얻은 결과는 불뱀의 축복이라는 行爲로 상징되는 宇宙萬物에 대한 사랑, 自然과 宇宙와의 原初의 유대의 회복이다. 워즈워스는 「나에게는 바람에 나부끼는 가장 미친한 꽃이라도 때로 눈물을 자아내기에는 너무나 깊숙히 숨어 있는 思想들을 일깨워준다」(“To me the meanest flower that blows can give / Thoughts that do often lie too deep for tears.”—“Ode : Intimations of Immortality,” ll. 204~205)라고 人間과 自然 간의 交感을 노래했지만, 코울리지는 神의 저주를 받고 인간의 증오의 대상이 됐은, 그러나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물)뱀의 축복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와 흡사한 체험을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水夫가 결혼식 賀客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교훈은 「가장 잘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잘 기도하는 사람이다, 크건 작건 모든 萬物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神/그분은 萬物을 만드셨고 사랑하셨기에」(“He prayeth best, who loves best / All things both great and small; / For the God who loves us, / He made and loveth all.”—ll. 614~617)이다. 宇宙內의 森羅萬相은 「하나의 生命」⁵⁸⁾이라는 깨달음이 남겨준 교훈이다. 그리고 이같은 깨달음만이 인간을 죽음의 상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인간에게 再生을 가져다 줄 유일한 길이라고 水夫는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다. 마땅히 이 교훈은 널리 萬人에게 傳播되어야만 한다. 人類의 文化史는 인간 精神과 自然간의 統一을 指向하는 「순환적인 教育的旅路」이어왔으며, 이를 인식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이같은 點을 새로이 상기시켜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福音이 인간 사회에 널리 유포되고 또 실천되지 않는 한, 水夫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의 福音 傳播의 旅路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體驗을 통해서 教訓을 얻어내어 이를 萬人에게 전파한다는 것, 이것이 코울리지가 인간의 절망적 상황을 다룸에 있어서 英國의 다른 浪漫主義 詩人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한가지 특징이다.

Bibliography

- Abrams, M.H., *Natural Supernaturalism*.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71.
- Ibid. (ed.), *English Romantic Poets: Modern Essays in Criticism*. Londo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Benoit, Raymond, *Single Nature's Double Name*. The Hague, Paris: Mouton, 1973.
- Bloom, Harold, *The Ringers in the Tower: Studies in Romantic Tradition*.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 Bodkin, Maud, *Archetypal Patterns in Poetry: Psychological Studies of Imagin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 Bowra, C. Maurice, *The Romantic Imagination*. Oxfor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Brett, R.L., *Reason and Imagination*. London, New York,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 Brooks, Cleanth, *The Well Wrought Urn: Studies in the Structure of Poetry*. New York, London: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5.
- Daiches, David, *A Critical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Vo. II. New York: The Roland Press Company, 1960.
- Eliade, Mircea, *The Myth of the Eternal Return, or Cosmos and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58) *Letters of S.T. Coleridge*, ed. E.H. Coleridge (London, 1895), I, pp. 403, quoted in *English Romantic Poets*, p. 217.

- Ibid.,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New York, 1958. tr. into Korean by Lee Eun Bong, Seoul: Hyung Sul Publishers, 1979.
- Grierson, Herbert J.C., & Smith, J.C., *A Critical History of English Poet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Harding, D.W., *Experience into Words*.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Ltd, 1974.
- Hough, Graham, *The Romantic Poet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1964.
- Wellek, Rene, & Warren, Austin, *Theory of Literature*,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Ltd, 1966.
- Wimsatt, W.K., *The Verbal Icon: Studies in the Meaning of Poetry*.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67.
- Wimsatt, W.K., & Brooks, Cleanth, *Literary Criticism: A Short History*, Vol. III (Romantic Critic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0.
- *Jaspers, Karl, "Buddha and Nagarjuna" in *The Great Philosophers*. tr. into Korean by Chung Byung Jo. Seoul: The Tripitaka Translation Institute of Dong Guk University, 1978.

장안실업전문대학
영어과 전임